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September 2014

PERFECTION IN LIFE

PIAGET



Young Creators

갤러리스트 폴 존슨의 뉴욕 집
미식 계보를 잇는, 뉴스타 셰프들
2014 F/W 백&슈즈 북인북



2013년 영국 프리즈 아트 페어에서 열렸던 (Frieze Masters)展 풍경. 국제 갤러리가 '단색화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단색조 추상회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Photo: Kim Sang-Tae

2014 스위스 아트 바젤의 국제 갤러리 부스 전경. 이우환, 정상화, 정상화, 하종현, 박서보의 작품을 선보였다.



Photo: Stefano Piffoni di Piffoni

단색화의 귀환

세계 미술계가 지금 한국의 '단색화(Dansaekhwa)'를 주목하고 있다. 이우환의 베르사유 전시와 더불어 극동의 미니멀리즘에 탐닉하는 서구의 컬렉터들이 한국의 모노크롬 페인팅 '단색화'에 눈을 뜨고 있는 것. 물질성과 정신성에 대한 순수한 탐구로 장인적 붓질을 멈추지 않았던 단색화 화가들, 그리고 차츰 신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색화의 세계를 되돌아본다. editor 박지혜



하종현, Conjunction 85-31, Oil on hemp, 162x120cm, 1985



박서보, Ecriture(書法) No.17-76, Pencil and Oil on Canvas, 96x130cm, 1976

최근 단색화가 서구의 미술시장, 특히 골지의 아트 페어들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시작된 영국 프리즈 아트 페어의 (Frieze Masters)展(프리즈 아트 페어가 20세기 근현대미술을 소개하고자 작년 처음 선보인 프로그램)부터 올해 6월 스위스의 아트 바젤에 이르는 지속적인 컬렉터들의 열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국제 갤러리는 이 행사를 통해 '단색화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1970~80년대 사이에 제작된 단색조의 추상회화 작가들(정상화, 정상화, 하종현, 이우환, 박서보, 김기린, 윤형근)의 작품을 소개했는데 이 전시는 당시 서구의 컬렉터들뿐 아니라 세계적인 뮤지엄들 관계자들에게까지 매력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 유럽은 과거의 앵포르멜 회화에는 친숙하지만, 극동아시아의 추상회화가 지나는 서구적 미니멀리즘을 접하기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이런 모노크롬 회화가 지나는 동시대적인 면모에 호감을 가졌으며, 이런 현상을 통해 지금의 세계 미술시장은 아시아 현대미술의 회화가 지나는 가능성에 고무되어 있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단색화에 대한 다양한 평론과 담론이 있어왔다. 2008년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추상회화 1958~2008> 전시가 그러했고, 2012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단색화>展을 열어 다시 한번 단색화 작가들을 조명했다. 과거 '단색조'의 주축이 되었던 작가들은 추상 작품이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정신적인 면에 주목했고 작품 역시 그 근본적인 맥락을 따르며 다양한 실험을 펼쳤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단색화'에 쏟아지는 관심과 재평가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서구의 이러한 관심은 단색화를 하나의 미술사조로 국한하기보다 하나의 실험적인 시도, 곧 '무브먼트(Movement)'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설명이 된다. 단색화 작가들은 당시의 보수적이고 아카데미 예술 구조에 저항하며 미술적 형식과 질료에 대한 한계에 도전했는데, 이는 회화에 대한 일종의 형식 실험운동으로 볼 수 있다. 재료와 형식에 대한 이들의 집요한 실험은 무브먼트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단색화 작가들이 주목받는 현상에 대해 비즈니스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한시적인 관심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역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에 숨겨진 다채로운 영역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실로 작년은 세계 미술계가 아시아 현대미술의 숨겨진 면면을 재조명한 원년이라 할만한 해였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은 아시아 현대미술을 조망하는 전시로 1960~70년대 도쿄의 아방가르드 문화운동을 다룬 (Tokyo 1955-1970: A New Avant-Garde)展을 열었고, 구겐하임 미술관은 일본의 전위적인 실험미술그룹 구타이의 활동을 돌아보는 (Gutai: Splendid Playground)展을 개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근래에는 1960~80년대 동아시아 및 중동 현대미술을 다루는 갤러리 '알렉산더 그레이 어소시에이츠'가 <근대의 극복, 단색화: 한국의 모노크롬 운동>展을 열어 단색화 작가들을 조명했다. 주요 미술기관들 역시 그간 주목받을 기회가 없던 아시아 현대미술에서 분명한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국내의 갤러리들 역시 이런 관심의 흐름을 지속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갤러리 현대의 정상화 전, 그리고 곧 시작되는 국제 갤러리의 <단색화의 예술, The Art of Dansaekhwa>(8월 28일~10월 19일) 전시가 그렇고, 이어 PKM 갤러리 역시 윤형근 작가의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흥미로운 소식은 곧 LA 소재의 유명 화랑 '블럼 앤 포(Blum & Poe)'가 단색화 전시 (From All Sides: Dansaekhwa on Abstraction)(9월 13일~11월 8일)을 열 예정이라는 것. 한국계 미국인 미술사가 조앤 기(Joan Kee)가 기획한 이 전시에서도 앞서 언급한 단색화의 주요한 작가들(정상화, 하종현, 윤형근, 권영우, 박서보, 이우환)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단색화는 서구 중심적인 미술사의 한계를 넘어 모더니티와의 절충을 이룬 하나의 훌륭한 예이다." 앞서 소개한 <근대의 극복, 단색화: 한국의 모노크롬 운동>展을 기획한 비평가이자 큐레이터 듀오 샘 바르빌과 킬 펠라스(Sam Bardaouil and Till Fellrath)의 말이다. 역사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단색화 작품과 작가의 가치를 재평가하기보다 지금, 단색화가 지닌 동서양을 넘어서는 현대성에 주목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흥미로운 관점과 해석들이 계속 등장하며 단색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단색화(Dansaekhwa)는 서구 중심적인 미술사의 한계를 넘어 모더니티와의 절충을 이룬 하나의 훌륭한 예이다." <근대의 극복, 단색화: 한국의 모노크롬 운동>展을 기획한 비평가이자 큐레이터 듀오 샘 바르빌과 킬 펠라스의 말이다.

writing 전민경(국제 갤러리 FR 대표)

단색화 거장 4인을 말한다

네 곳의 갤러리가 그들이 사랑하고 추억하는 단색화 작가와 그 작품 세계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단색화 작가들에 대한 생각이 '1970년대의 화단을 이끌었던 일군의 미니멀리즘 작가'라는 추상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이들의 명료한 이야기가 그들에 대한 이해를 더해줄 것이다.



정창섭, Wandering 22, Oil on Canvas, 146x111.5cm, 1996

CHUNG CHANG SUP(1927~2011) by 국제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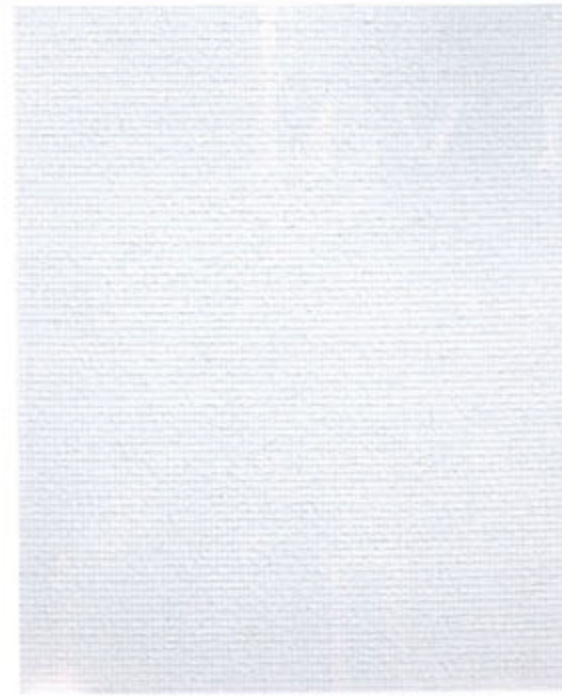
'타(楮)의 작가'라 불렸던 작가 정창섭은 생전에 무려 50여 년간 한지를 평면 탐구의 매개로 매진했다. 당시 '단색조'를 위주로 하는 작가들이 그러했듯 그 역시 재료의 '물질'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실험해온 작가다. 그는 한지를 작품의 도구로서뿐 아니라 이를 하나의 '매체'이자 행위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그 속성을 실험했다. 한지를 물에 풀어 이를 짓이키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며 재료가 만들어내는 우연적인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해온 것이다. 이런 추상적 이미지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미학이론과 평론에 의해 다루어졌지만, 이런 내용을 대중들이 이해하기란 막연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론가 윤진섭이 제작된 국립현대미술관의 단색화 전시 당시 정창섭에 대해 소개한 글을 일부 소개한다. "정창섭은 생전에 자신이 즐겨 다루던 한지(韓紙)를 가리켜 유별나게 '한지(漢紙)'로 불렀다. 한지는 추운 겨울에 다뤄야 제 맛이 있는 게 그 이유다. 이 말은 마치 평양냉면은 추운 겨울날 이불을 쓴 채 얼음이 어서어석 씹히는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어야 제 맛이 있는 말처럼 들린다." 작업에 있어 재료에 대한 필연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말에서 막연하게나마 어떤 심리와 감각으로 그가 한지의 물성을 회화에 담아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서 보건대, 그가 추구했던 몰아일체의 경지란 자연과 자아가 하나 되는 심오한 관념의 회화라기보다는 신체가 기억하는 감각의 실재가 작품에 실현되는 리얼리티에 대한 지난한 도전이었다고 여겨진다. - 전민경(국제 갤러리 PR 대표)



이동엽, 사이공간 30_INTERSPACE, 162x130cm, Oil on Canvas, 2008

LEE DONG YUB(1946~2013) by 학교재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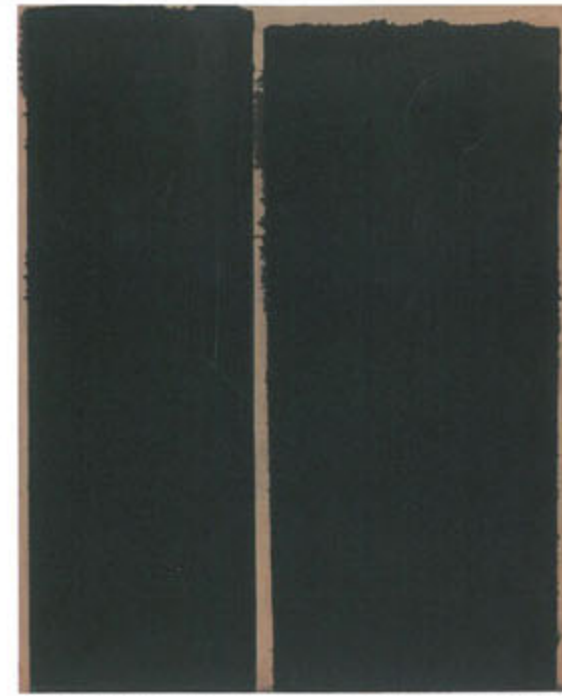
로랑 헤기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관장과 함께 이동엽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200호 정도의 하얀 회화 한 점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안개가 피어 오르는 듯한 간략한 붓질이 있었다. 묘하게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작가에게 물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작가는 '바다의 노래'를 표현했다며 이 작품이 자신의 대표작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헤기 관장은 후에 이동엽의 전시를 유럽에서 유치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으나 전시 경비와 시기 등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점이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동엽 작가 하면 생각나는 밤이 있다. 2007년 학교재 갤러리에서 있었던 정상화 작가의 개인전 오프닝 날이었다. 뒤쪽이 자리에 있던 이동엽 작가가 불쑥 일어나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정상화 선생의 전시를 축하하는 의미로 노래 한 곡을 부르겠다고 나섰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웬걸, 성악가 이상으로 잘 불렀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연속으로 두 곡을 부르고 정상화 선생도 담가를 불렀다. 그의 노래 속에 그의 그림이 있고, 그의 그림 속에 그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했다. 멋지고 즐거운 밤이었다. 동양적 감수성과 우주의 조화로운 음극도로 절제된 화면 묘사로 표현한 이동엽의 작품은 일핏 봤을 때 단순한 하얀색이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최근 단색화의 인기가 더불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학교재 갤러리에서는 내년쯤 상하이 전시장에서 유작전을 열 계획이다. - 우찬규(학교재 갤러리 대표)



정상화, 무제 011-3-8, Acrylic on Canvas, 162.2x130.3cm, 2011

CHUNG SANG HWA(1932~) by 갤러리 현대

지난봄, 손님을 모시고 정상화의 여주 작업실을 찾았을 때 작가는 "귀한 손님은 동(東)으로 모시는 법"이라며 굳이 집 한 바퀴를 돌아 동쪽 문으로 향했다. 여든둘 노(老) 화가의 존중, 배려, 그리고 사려 깊음이 느껴졌다. 이런 태도는 분명 수행 같은 그의 작업 과정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사조인 단색화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활발하게 재평가되고 있다. 정상화는 단색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표 작가다. 멀리서 흑색, 백색, 적색, 또는 청색 등의 단색 표면으로 보이는 그의 작품은 다가갈수록 고른 격자무늬 모양의 균열을 보인다. 캔버스에 고령토로 초벌을 칠하고 그것을 규칙적인 형태로 접어 생긴 각각의 네모꼴은 아크릴 물감으로 메워지고, 덮어지고, 다시 메워지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한다. 이를 통해 한 작품을 완성하면 수개월 또는 1년이 훌쩍 지난다. 작가는 산골짜기에서 오로지 홀로 캔버스와 마주하며 눈을 떠 잠드는 순간까지 열 색 없이 손을 움직인다. 그의 작품에는 치열한 예술적 고뇌의 흔적과 노동의 시간이 오롯이 아로새겨져 있다. 정상화의 작업은 결과물만을 목표로 하는 보통의 예술가들과 달리 결과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다. 과정을 통해 의미를 밝히는 작가는 그의 작품을 "되풀이되는 나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라고 설명한다. 시간의 흐름은 반복과도 같으나 어제와 오늘, 조금 전과 지금은 분명 다르다. 화면을 가득 채운 네모꼴이 모두 각각의 크기와 부피를 가지듯, 정상화의 작품은 무한히 흐르는 시간 속 미세한 차이를 쌓아 고유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내, 받아들임, 내려놓기 등 작가의 정념(正念)을 담고 있는 그 역사는 보는 이에 게 감동으로 전해져온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작품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 김한울(갤러리 현대 큐레이터)



윤형근, Burnt Umber & Ultramarine Blue, Oil on linen, 162.1x130.3 cm, 3.2cm, 1991

YUN HYUNG KEUN(1928~2007) by PKM 갤러리

윤형근 화백의 작품은 한국의 전통적 선비사상을 바탕으로 정신적 명료함과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명 혹은 마 같은 우리의 전통 소재 위에 수묵을 연상시키는 붓질의 한없이 깊은 검은색은 실제로는 갈색(Burnt-umber)과 청색(Ultramarine-blue)을 작가가 고유의 배합으로 만들어 완성시킨 색상이다. 우리는 한없이 어지러운 오늘날 세상에서 그분의 성품과도 같이 깨끗하고 고요하며 동시에 깊고 유연한 선비적 화면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는 위안을 받는다. 작가 생전인 1990년대 초반, 전시를 위해 내한했던 도널드 저드와 만나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예술적 동지가 되었던 윤 화백은 당시 도널드 저드가 설립한 텍사스 마르파의 미술관에서 그와 그룹전을 함께 했으며, 저드의 소개로 동양의 겐 스타일을 추구한 캘빈 클라인 홈 컬렉션 지면 광고에 작품 이미지가 실리기도 했다. 저드 역시 한국 전통 건축 중 특히 종묘에 매료되어 여러 차례 그곳을 찾았던 사실은 그가 왜 윤형근의 작품에 매료되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저드가 만약 좀 더 오래 살았다 라면 틀림없이 윤 화백과 국제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윌해 아트 바젤 홍콩과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소개된 윤 화백의 작품들에 대해 우리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작가의 작품에 담긴 의도와 정신을 읽어냈던 유럽의 화상들과 컬렉터들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미술역시 우리의 전통에서 비롯된 콘텐츠가 결국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번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독일의 한 유명 화상이 필자에게 이번 페어에서 진정한 발견은 윤형근이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윤 화백의 작품이 앞으로의 전시를 통해 다시금 조명되어 세계 미술계의 '커다란 발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 박경미(PKM 갤러리 대표) [K]